

대학발전 위기, 질적 도약 절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28위 ... 대응책 이달 중 발표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2007년 전국대학평가' 결과에서 우리학교는 종합순위 28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순위로 발표했다. 중앙일보의 2007년 대학평가는 올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의 4년제 대학 가운데 신설대(지난해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대학 기준)와 산업대, 교육대, 종교대를 제외한 국·공립대 24개, 사립 98개 등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평가는 △교육여건 및 재정부 △국제화 부문 △교수 연구 부문 △평판 및 사회 진출도 부문 등 작년 평가 부문 중에서 개선도 부문이 빠진 네 부문으로 이뤄졌다. 우리 학교의 경우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함께 평가됐으며, 교수 연구부문을 제외한 부문별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약간씩 하락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숙명여대와 함께 20위권 밖의 권역별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
지난해 39위였던 교육여건 및 재정부 부문은 40위로 한 단계 떨어졌

다. 이 부문에는 △교수 당 학생수 △교수 확보율 △학생당 장학금 규모 △기숙사 수용률 △학생당 도서 자료 구입비 △학생당 교육비 △세입 중 납입금 비율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우리학교의 학생당 장학금 규모는 7위로 작년 대비 41위에 비해 대폭 상승했지만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율 항목은 작년 대비 56위에서 93위로 순위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제외한 다른 10개의 세부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40위권 밖의 순위를 보였다.

▲국제화 부문
국제화 부문은 작년보다 12단계 떨어진 종합순위 45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학교는 △외국인 교수 비율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영어가강좌비율 등 다섯 개 항목 모두 대폭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인 항목으로는 해외 파견 교환학생비율로 57위를 기록해 작년에 비해 무

려 24단계 하락했다.

▲교수 연구부문
교수 연구 부문은 지난해 35위에서 올해 33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여기에는 △계열 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 △인문사회 및 체육 교수당 국내 논문 게재수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 △기술이전료 수입액 △과학기술 교수당 국내 논문 게재수 △과학기술 교수당 SCI 논문 게재수 등 10부문에 의해 이뤄졌다. 계열 평균 교수당 외부지원 연구비는 8위로 작년에 비해 18단계 상승했지만 교수당 국·내외 논문 게재수의 순위 및 수치는 대부분 하락했다.

▲평판 및 사회진출도 부문
졸업생의 사회진출과 학교의 이미지를 지표로 평가하는 이 부문은 타 지표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종합 순위 18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이 부문은 △졸업생 취업률(2006년) △사법·외무·행정 고시 합격자 수(사법·행정 2006년, 외무 2007년) △거러소·코스닥 상장업체 임원 수(2007

년) △공인회계사·변리사 합격자 수(2007년) △졸업생 자기계발 능력 △학교-진학추천대학 △기부금 내고 싶은 대학 △발전가능성이 큰 대학 등 11개 부문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2006학년도 졸업자 취업률은 56위로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서는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또한 고시 합격자수와 회계사·변리사 합격자 수는 작년 19위 20위에 비해 17위 14위로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우리학교의 각 부문 지표담당자들은 이번 달 안으로 이번 대학 평가 대책 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50위권 밖의 항목을 특별관리지표로 선정해 관리하고, 11위에서 20위권 사이의 항목은 10위권 안의 도입 목표를 골라와 하고 있다. 외부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경영평가팀 방중혁 팀원은 "학교 평가 순위가 대학 이미지를 대표하는 만큼 내년에 있을 평가에 대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활기찬 발걸음 ... 지난 9일 제1회 동국인 남산걷기대회가 열렸다. 첫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많은 동국인들이 참석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신정아 사건’ 대국민 사과문 발표

주요일간지·교계신문 게재 ... 새로운 각오 다짐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대 국민 사과 성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학교 측은 이번 성명에서 '신정아 사건'에 대해 "재학생, 동문, 학부모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철저히 질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나 정치 목적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0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에 실렸으며 오는 17일에는 불교신문, 현대불교, 법보신문, 주간불교, 만불신문, 금강신문에 실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라홍보실

(실장=김봉현·광고홍보화)은 주요 신문에 실리는 모집 광고(△10일 대학원 신입생 모집 광고 △22일 교수 초빙 광고 △11월 중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광고 △12월 중 정시모집광고)와 함께 학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속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전라홍보실 류변성 과장은 "사건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니만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광고를 신중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홍보실은 이번 '신정아 사건'에 대한 백서와 기업체 배포용 홍보잡지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신정아 사건' 백서에는 이번 사건발생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학내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가 취한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기록할 예정이다. 이는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니 만큼 기록으로 남겨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번 12월 중 배포될 기업체 배포용 홍보잡지는 기업의 인사, 교육 담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학교가 길러내는 인재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것이다. 이는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인턴십, 공학인증,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실을 예정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기증된 토지,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

이사회에서 결정 ... 교수회 주장 대응방안도 논의

지난 1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제 232차 이사회에서 故이순희 할머니가 지난 달 10일 학교에 기증한 토지를 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토지의 활용 방법을 비롯해 로스쿨 유지문제를 주요안건으로 다뤘다. 이상영(법학) 법과대 학장은 "로스쿨은 불교계 전체 위상과 직결돼 있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 교원 4명 등 법과대학 교수 6명을 신규 임용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로서 법과대학은 현재 27명의 교원을 확보했다.

또한 이사회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수회 대의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서를 안전으로 정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토론했으나 '비상교수총회'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수회 대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신정아 사건'을 책임지고 법인 이사장과 이사진, 총장, 경영부총장 등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정관 시행세칙 개정 △일산불교병원 기계설비 리스 승인 등의 안건이 이날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교수회 "이사진·총장 사퇴" 촉구

교수회(회장=이종욱·경영정보학)가 지난 12일 동국관 L501에서 비상교수총회를 열어 재단 이사회 이사장 및 이사진과 총장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의결했다. 이종욱 교수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단 이사장과 총장이 명예가 실추된 대학을 재도약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이날 회의에 총 84명의 교수가 참석하고 85명의 교수가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안전으로 정재형(영화영상학)교수가 이번사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의해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중단이나 학내·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학내외에서 재단이사 퇴진 등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총장퇴진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총장 취임 이후 교수성과평가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교수회가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대 신입교원 임용

법학전문대학 추진을 위한 법과대 신입교원 임용이 지난 1일자로 결정됐다. 이는 교원 중 20% 이상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실무교원이어야 한다는 로스쿨설립 조건을 위해 영입된 것이다. 16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수는 정년외 보장된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수=강동욱(법학), 박민영(법학), 방희선(법학), 한희원(법학) △부교수=최성호(법학) △조교수=이혜리(법학)

참회법회, 오늘부터

'참회와 발원을 위한 기도법회'가 정각원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간씩 진행된다. 이 법회는 신정아 사건으로 인한 자성과 참회 및 화합을 통해 재도약을 기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기도법회 의식은 정각원장 종호스님이 집전한다. 첫날에는 총장,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획 2007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분석

동국의 현주소

이대로 괜찮은가?

관련지면 4·5면 기획면

포스텍 1위, 고·신대 공동 4위

값진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번 허위학력사건으로 대학 구성원은 물론 20만 동문과 학부모님, 그리고 2천만 불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를 걱정해주신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과 따가운 질책을 계기로 삼아 동국대학교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더욱 엄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초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경영 및 학사운영의 기본틀을 혁신하여 대학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지고 바뀔 부분은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약속드립니다.

최고의 교수를 모시고 최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학,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우리 대학이 마치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부풀림으로써 학교에 이룰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학혁신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참여한 대학 특성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의 결과마저도 왜곡되면서 동국대학교의 명예가 부당하게 실추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보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의 중심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해갈 동국대학교의 미래를 애정어린 격려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2007년 10월 10일

다양한 공연으로 동악은 '후끈'

내용은 '만족'... 수동적인 학생참여는 '썩썩'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동국 페스티벌 in Autumn'이 동국인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의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많은 공연들로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축제의 첫날인 9일에는 제1회 동국인 남산걷기대회가 진행됐다. 이는 동국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건강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것으로 오영교 총장, 한진수 경영부총장, 최순열 학사부총장을 비롯해 일반학생들까지 약 500여명이 참가했다.

만해광장에서 집결 후, 정문, 국립극장, 남산산책로, 삼복원, 만해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기념품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티셔츠를, 추후 주점을 통해 듀얼코어 컴퓨터, 19" LCD모니터, 난텐도 DS 등의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 만해광장에 설치된 특별무대에서는 '백상응원

Festival'이 개그맨 김기열, 이지훈의 진행으로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백상응원단의 응원전과 함께 △이화여대 응원단 PYRUS △인하대 응원단 ASSESS △신한은행 여자프로농구 치어리더 등이 찬조출연했으며, 가수 거미가 초대가수로 출연해 더욱 화려한 무대를 만들었다.

10일에는 동아리연합회(회장=김은진·중문3)의 '심심타파'가 축제를 이어갔다.

낮에는 팔정도에서 △단체출범기 △상자 탑 쌓기 △요구르트 먹기대회 △풍선아트 △비즈공예 △핸드페인팅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오후 6시부터는 만해광장 특별무대에서 개그맨 박규선의 진행으로 △OPUS △손짓사랑회 △피어리스틴 △풍계구름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가수 드림스타이거의 무대가 더해져 공연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오후 6시부터 제3회 목석가요제가 약2,000명의 동국인의 참여속에서 성공리에 진행됐다. 개그맨 강유미, 윤희빈이 진행한 이번 가요제는 본선에 진출한 12팀의 공연 외에도 양파, 이승기, 거북이, 영지 등이 초대가수로 참여해 관객들의 인기를 집중시켰다. 또한 DUBS가 인턴방송 아프리카를 통해 생중계해 집에서도 생방송으로 목석가요제를 즐길 수 있었다.

가요제의 대상은 'I promise you'를 부른 김기범(신방2)·김성진(전기공2) 팀에게 돌아갔으며 이들은 장학금 1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 이번 가을 축제에 참여한 배우리(경영2) 양은 "질 높은 공연을 3일 연속 즐길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한편 "축제 가운데 공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 관련지면 8면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지난 한주 축제기간 동안 학내 곳곳의 게시판 및 비석은 각종 포스터로 가득했다. 총학생회 "우린 예외다" ... 주제로 진행된 "물린동국캠페인"이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포스터가 난무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한전부터

그림의 롤(Roll)

○...과전 가게에서는 과전이 메인, 통닭 가게에서는 통닭이 메인 인건 당연. 그런데 상록원 롤(roll) 가게는 이름만 롤과 롤. 현재시각 12시 10분. 이제 한창 점심시간 시작인데. 급제, 롤이 다 떨어졌다네.

그림 롤(roll) 가게에서 롤 안 팔고 뭐하냐고? 옆 분식메뉴에도 있는 분식메뉴. 그림 거면, 이름부터 바꾸지? 우등&일방.

과유불급

○...가을바다는 전어가 한철 동악에는 포스터가 한철 동악의 10월은 공연, 행사가 넘쳐난다. 덕분에 동악은 포스터로 명이 든다. 가을 전어야 고소함의 대명사라지만 포스터 붙이는 사람은 고소할 수도 없고 "클린 동국"이 무색한 포스터 홍수 게시판에만 달아야 된다면?

동국관 백수함

○...동국관 사물함엔 백수가 산다는데. 안 출거면 사물함 배정은 왜 받았는지. 자물쇠도 안 달려서 입을 벌린 사물함이 사물함 없는 학생들 약이 나올리고 있다고. 빈 사물함 점검으로 노는 사물함 좀 흔내주길.

"재주는 곰이 넘고 ..."

○...A군 : 나 오늘 2시간 자고 겨우 전공과제 다 해했는데, 아침에 학교가자마자 내 과제를 서로 빼앗아 가네. 계속 볼 사이인데, 베끼지 말라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나... B양 : 과제? 왜 그걸 미리 해? 수업 시작 20분만 일찍 들어가서 과제 해온 사람 찾는데 5분, 과제 좀 보여 달라 부탁하는데 5분, 베끼는데 10분이면 끝인데 뭘... A군? B양? 당신은 현재 어떤 부류 입니까?

오는 22일 중간 강의평가 실시

불이행 조건 변경 ... 마이페이지 손쉽게 평가가능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는 중간 강의평가에서 강의 평가 불이행시 학교 홈페이지 및 E-Class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은 행정 업무상 불편과 홈페이지 시스템 상의 문제로 변경됐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My-page 로그인 시 강의평가창이 함께 띄워져 학생들이 무리 없이 강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수업/성적 강의평가를 선택해 평가를 할 수 있다.

강의평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 교무팀 이용택 팀원은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무조건 전수화 혹은 등급화 하여 공개를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객관적인 공개 지표들 모색 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답변 성실성에 따라 강의평가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기부터 중간·기말의 강의평가를 반드시 2회 모두 입력해야 한다. 기말 강의평가시작은 1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중앙도서관, Web 서비스 운영

논문 작성 시 많은 도움 ... 18일 이용자교육 실시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에서 Web of Science, EndNote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등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시범운영했으며 9월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Web of Science는 학문 전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료의 이용도 및 인용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웹 사이트다. 현재 Web DB 나 전자저널은 어떤 자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알아야 이용 가능하니까. 이에 비해 Web of Science는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가 광범위할 때 검색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연구의 틀을 잡아주는 데 유용하다.

EndNote는 논문 작성 및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며 안내에 따라 자

료를 입력하면 각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양식을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이는 해외 우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논문을 다시 만들어야 했던 수고를 덜어 줄 것이다.

중앙도서관 전산실 박희동 직원은 "좋은 논문을 쓰려면 뒷받침되는 도구들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은 연구와 논문작성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Web of Science는 www.isi knowledge.com에서 이용 가능하며 EndNote는 중앙도서관 전산실에 요청하면 메일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URL을 송부해 준다. 자세한 사용 방법에 대한 이용자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내 이용자교육실에서 90분 내외로 진행된다.

시험, 중간시험 기간 중

주말 오픈 및 야참 제공

생활협동조합(이사장=박상진·생명화학공학)은 이번 중간고사부터 시험기간에 야참으로 잔치국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야참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상록원 2층 학생식당에서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공된다.

한편 학내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 상록원식당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1층 분식코너에서는 시험기간 중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분식 외에 백반을 추가로 배식한다. 2층 학생식당도 시험기간 2주 동안만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배식을 한다. 이 운영 방식은 어제(14일)부터 적용되었다.

정각원 '위빠사나' 프로그램

장사의 초빙 정기법회 개최

'위빠사나의 이론과 실습'이 내일(16)부터 18일까지 정각원 법당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위빠사나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거나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마음을 집중하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이다. 이 프로그램은 행은 도정 스님의 지도로 교직원, 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오는 23일 4시에는 10월 정기법회가 정각원 법당에서 열린다. 이번 법회에는 국악인 장사의 씨가 강사로 초빙되어 '자연과 인생'이라는 법제로 강연한다.

컴퓨터 공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증서 수여



제4회 컴퓨터공학과 동창회(동창회장=유상동·컴공77졸)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9일 원흥관 E103호에서 열렸다.

이번 학기에는 서성혁(컴공4), 김영래(컴공4), 남유근(컴공3), 이민

지(컴공2) 학생이 각각 1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컴퓨터공학과는 지난 2005년 장학회를 설립한 이래 매학기 성적과 학과기여도 등을 평가·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여학생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오늘부터 접수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심열·가정교육)는 '자기소개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늘(15일)부터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 전자우편 alisa@dongguk.edu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50명을 접수받는다.

취업의 제1차 관문이 서류심사인 만큼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제

대로 갖춰져야 면접심사까지 갈 수 있다. 때문에 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회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학생 모두는 취업전문컨설턴트에게 첨삭 받은 자기소개서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우수한 학생 3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우수 자기소개서는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야구부·농구부, 전국체전 결승진출 실패

우리학교 야구부(감독=김학웅)와 농구부(감독=이호근)가 '제88회 광주광역시 전국체육대회'에서 준결승전에 오르는 데 그쳤다.

야구부(감독=김학웅)는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를 각각 5:1, 6:1로 꺾었다.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성균관대

학교와 3:3으로 비긴 뒤 경기규칙에 따라 진행된 추첨을 통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농구부는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차례로 117:60, 92:62로 물리쳤지만 준결승전에서 국군체육부대 팀에게 84:69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동악로에서

잊혀진 약속

'화장실마다 한 칸씩 비데 확보, 컴퓨터 30%업그레이드' 학생 A : 우리도 이제 비데 쓸 수 있는 거야?

작년 경영대 학생회장 선거의 분위기다. 단과대 학생회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지금,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경영대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과의 접촉이 이뤄졌지만 학교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위의 공약과 같이 학교 측의 지원이 필요한 공약은 학생들 앞에서 약속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지 않았을까.

'학생들 요구를 반영한 체육대회 개최'

이건 작년 공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나왔던 공약이다. 이 공약은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계획했던 행사였다. 하지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과대 이순양(기계공4) 학생회장은 "만해광장, 대운동장의 대어가 힘들었고 시험기간이 겹치면서 결국 체육대회행사가 아닌 종강총회를 더 크게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체육대회행사를 계획한 다른 단과대는 같은 여건 속에

서도 행사가 진행됐거나 진행 예정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공약은 투표 전 후보의 필립이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책임있는 활동을 위한 후보자로서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표자도 마찬가지다. 무리한 공약에 대해서 판단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투표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단과대 학생회 임기가 이제 2개월 남짓 남았다. 멋진 문구, 희망 찬 포부를 내걸며 첫발을 내딛었던 단과대 학생회, 그들이 내세웠던 공약은 학생회로서 "○○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학생과의 약속이었다. 선거를 위한 공약으로 그들을 속여서도 안 되고 공약이행의 실패를 묵과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는 사실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예산부문에 대해서 사과대 정원철(사회3) 학생회장은 "예산으로 편성된 2학기 학생회비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집

행부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돈을 학생회 사업에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는 대부분의 단과대 학생회가 겪는 어려움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은 지켜야 한다.

학생회비 납부율이 점점 떨어져 학생회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 일은 학생회 스스로의 반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학생회를 흔히 학생의 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라고 한다. 학생들 또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입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임해야 한다. 책임감 있는 후보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투표자가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장학금 신설

학사지원본부(본부장=이명천·생명화학공학)에서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장학금'을 신설한다. 이는 이공계열 기피현상으로 인해 이공계열 대학원생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장학 프로그램은 2008학년도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석·박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연구, 실험실습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는 조건으로 1학기 1회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수혜자격 기준은 신입생 중 전일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며 교내장학금의 이중수혜는 허용하지 않는다. 2008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시행한다.

동국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전략홍보실(실장=김봉현·광고홍보학)에서 2007가을 동국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동국인의 캠퍼스 라이프'와 '새로워진 동국'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출품 작의 수는 일인당 10점 이내며, 다음달 30일까지 웹하드 ID dgupr 비밀번호 3027로 접수받는다. 폴더에 소속과 이름으로 된 폴더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전공결정 공지지연 ... 이번주 발표

시험기간과 맞물려 학생들 혼란 예상

전공미결정 학생 전공결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이에 대한 계획조차 나오지 않아 1학년 학부생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결정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편의를 돕고자 이번학기부터 2학기 중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부터 배부된 각종 학사안내자료를 통해 2학기 중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전공결정을 예고해 왔으나 오는 29일부터 예정이라는 전공결정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지가 없다.

작년의 경우 1학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에 전공결정을 하게 되어 전공결정보다 전과가 먼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일부 1학년 학부생 가운데 성적 미달로 원하는 학과로의 전공결정이 불확실할 경우 전과신청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둘다 합격하면 전과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달았다. 이같이 1학년 학생들이 전공결정과 전과 사이에서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전공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방학때 전공결정이 이뤄질 경우 학사일정에 무지한 학생들을 비롯해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이에 전공결정을 신청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1학년 학부생들은 전공결정을 위해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교수 및 행정직원의 상담이 요구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공지가 늦어 중간고사 시험기간과 맞물려 있어 1학년 학부생들의 고민 시간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늦어진 전공결정 공지에 대해 교무팀 최호진 팀원은 "담당자가 중간에 교체되면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소선(경영대1) 양은 "선배들처럼 학기가 끝나고 전공결정을 하는 줄 알았다"며 "많은 학생들이 나처럼 생각한다고 말해 아직 많은 1학년 학생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미결정 학생 전공결정에 관한 계획은 이번주 초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공결정의 시기를 앞당긴 것이 더딘 업무처리로 인해 취지가 무색해지진 않을까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숨은 동국 찾기

일상의 재발견

이제는 익숙해진 학생스님. 이렇게 도서관에서 만나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육성우 객원기자
y7s4w7d@dongguk.edu

특별기고 - 동국대 재단의 발전적 쇄신을 위한 제언

학교 · 재단 · 종단,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원원전략' 절실해

동국대학교는 조계종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분명하다. 동국대학교는 조계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17개 사찰의 삼보장재를 출연받아 설립된 종립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동국대와 조계종은 서로에게 발전이 되는 존재이기 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거듭하는 애증의 관계가 되어 버렸다. 학교는 더 이상의 투자에 인색한 종단에 불만을 갖게 됐고, 종단은 학교를 종단정치의 일부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관계는 지난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신정아사건을 계기로 동국대학교와 조계종단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재단쇄신의 바람직한 방향을 발전적으로 모색해 본다. 편집자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지난 10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소위 '신정아 사건'과 관련하여 동국대 재단이사들과 종단 총무원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강력한 자정요지를 밝히면서 조신일보 불매운동을 결의했다. 그리고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지난 4일에 검찰, 언론, 그리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정아 가짜학위사건은 종립 동국대 재단이사들 말고 있으면서 현 종단 핵심지도부의 일원인 장운스님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장운 스님은 정부고위관료 중에 가장 불교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면서 결국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국대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가 언론에 의해 매도당하는 지경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언론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번 사건을 부풀리고 왜곡시키며 악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불교계 전체를 위기와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일차적 책임은 종립대학과 불교계 내부에 있었음을 우리는 통렬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는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대학의 교수채용과 학위검증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종단과 동국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갈등과 반목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을 보도했다. 그러나 매각 결정 한 달 뒤에 강남개발계획이 발표되었고 불교계에서는 정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거센 비난이 일어나면서 소위 "봉은사 땅 매각사건"은 동국대를 둘러싼 종단분규의 계기가 되었다.

지금 시가 10조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 땅을 매각한 대가로 얻은 동국대의 건물과 토지의 현재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뿐만 아니라 매각사건을 계기로 불거지기 시작한 동국대 재단분규는 현재까지도 그 여파를 남기고 있다.

재단이사회 구성의 핵심쟁점

명진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세 번에 걸친 굵직한 불교계의 기여로 동국대 재단의 현재 물적 기반이 형성된 것은 재단 이사회가 스님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확실한 명분과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1979년 경주캠퍼스의 설립, 1991년 동국의료원 설립, 2004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 등 동국대의 굵직한 외형적인 성장의 기반은 불교계의 재정적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 학교 자체의 교비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교비의 주된 수입원이 학생 등록금인 것을 감안했을 때 70년대 중반 이후 동국대의 양적 성장 투자는 대부분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다수 사립대학이 학생등록금과 함께 청강생제도, 편입생제도

갈등이 소위 "동국대 문제"와 결부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에 상당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과 맞물려 동국대 승려이사 선임은 종단갈등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승려이사 9인'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임원선임요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당연히 선임하도록 개정되면서 이사선임의 합수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 9월 총회에서 이사후보 추천이 무산된 것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재단 쇄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일 동국대 재단 이사회는 신정아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면서 "재단의 전면적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국대 교수회와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는 "재단이사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사 전원 사퇴" 요구와 "재단의 전면적 쇄신" 표명은 현상적으로 상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현 이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질 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와 함께 이미 약속한 재단의 전면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학 구성원은 물론 종단과 동문사회, 그리고 사회각계의 건강함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 쇄신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재단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 동안 재단 운영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사들은 스님이사인 동문이사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이사 전원 사퇴는 재단이 해산되는 최악의 사태나 또는 관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을 초래한다.

한 여성의 가짜학위사건으로 이러한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우리는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일부 대학들의 파행적인 운영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사 전원이 교체된다고 해서 재단이 쇄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벌써 종단 내부에서는 차기 이사로 자천타천의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다. 대학경영을 잘 모르는 일부 불교계 인사들이 재단이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교계인사들에게 재단이사는 대학의 인사와 재정운영, 병원경영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있다.

그런 인사들이 재단이사가 되었을 경우에 대학경영은 파행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사 전원 교체 주장은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충분하다.

인적 쇄신과 함께 반드시 재단이사회 구성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승려이사 9인"이라는 이사회 구성의 한중조건은 재단과 종단의 분규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든다면, "승려이사 5인 이상"과 같은 유연한 규정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승려이사의 추천 조건을 "종단을 대표하여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승려"와 같이 교육기관의 운영책임 담보할 명분 있는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단 운영시스템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동국대학교는 불교계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보다도 방대한 재정규모와 인적 구성을 갖춘 매머드 기관이다. 동국대 재단 산하기관의 연간 총예산은 총무원 예산의 거의 20배 규모다. 이제 역으로 동국대가 불교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교계 일각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국대가 처한 현실은 아직도 여전히 불교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과연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일방적인 지원에 대해서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국대와 불교계는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윈윈할



▲ 1970년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수 사실을 전하는 동대신문 기사와 당시 캠퍼스 전경



▲ 신정아 가짜 학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제 226차 재단 이사회 회의(2007. 2. 15)

종단과 동국대의 관계형성 과정

개화기인 1906년, 근대적인 승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불교계에서 전국의 17개 사찰이 정재를 출연하여 명진학교를 설립했다.

명진학교를 시원으로 우리나라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한 동국대의 건학이념과 물적 기반이 불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일제 하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하여 동문선배들이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두 번의 강제징역을 당하면서도 그 맥이 유지된 바탕에는 불교정신의 힘이 있었다. 불교는 동국대의 토대이며 자랑이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하지 않는다.

1952년에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모여 동국대학을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구본사 소유 임야의 2할을 동국대의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을 결의했다. 소위 "2할림(二割林)"이라는 동국대의 새로운 물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동국대학'은 사학 최초의 종합대학인 '동국대학교'로 거듭나게 된다. 연세대, 고려대와 함께 소위 3대 명문 사학으로 입지를 굳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70년에 종단은 동국대의 미래에 분수령이 되는 종대결정을 한다. 현재 코엑스, 아셈빌딩,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이 들어선 강남의 요지인 봉은사 앞 종단소유 토지 11만 7천여평을 서우시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장충동 일대 토지 1만 2천여평과 현 해화관 건물인 당시 공무원교육원으로 사용하던 6층 건물을 매입하여 동국대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동대신문은 이 일에 대해서 "동대발전에 일대당보"라는 제목으로 흥분된 반응

를 통한 편법수단으로 재정확충을 해온 것과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동국대만의 특수한 상황과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교비투자에 의한 대학의 외형적인 성장은 불행하게도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수한 교수확충과 교육환경 조성에 쓰여야 할 교비가 천문학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제2캠퍼스와 병원 건립에 투입되면서 동국대는 80년대 이후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학내외의 대체로 일치된 견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대학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역대 재단 이사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재단 이사를 역임한 종단의 원로종진스님들 또한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지만 지난 과거의 잘못을 가려 그 책임을 지금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못하고 현 사태와 같은 갈등과 부조리의 뿌리가 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현재 동국대 재단이사회는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 9인, 대학의 장, 기여(其餘)는 이교도가 아닌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전체 13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려이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승려이사 9인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정관개정과 학교의 해산결의가 가능한 구성이다. 그동안 이러한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종립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에 이사 추천을 두고 조계종 총회가 몇 차례 흥역을 치르면서 종단 내부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국대 재단은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학당국에 책임과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재단은 이제 종단과 협력하여 대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명분 있는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정신적으로 건학이념의 주체임을 보여줄 수 있는 불교문화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그 운영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이사 중에 경영능력을 갖춘 재가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의 정재로 출연한 동국대재단의 자산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이 되어 대대수 자산이 활용되지 못했지만, 발상을 전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봉은사 땅처럼 한 달 뒤의 상전벽해를 예상치 못하고 선불리 매각하는 어리석음을 막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 미래가치를 키워 불교계 선각자들이 교육구국의 가치를 든 송고한 뜻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형의 불교정신과 문화유산은 그 어떤 일류대학도 갖지 못한 엄청난 자산의 보고임을 자각하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콘텐츠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적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불교는 문화 그 자체이며, 불교경전과 문화유산은 무궁무진한 문화콘텐츠의 원류이다.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고려불교가 방향을 잃고 내분에 휩싸였을 때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주장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신정아 사건은 동국대와 불교계를 강타했지만, 역사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국대와 불교계는 근본적인 자정과 혁신의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대학구성원들의 자탄과 비난의 화살이 종단과 재단을 향하고 있는 이 때, 한국불교의 수행종풍을 새롭게 세웠던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앞두고 전국의 선방수좌들과 강원외의 학인스님들이 어수선한 종단분위기를 쇄신하고 참회를 통해 자정을 결의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고 있다. 불행 중 다행스런 소식이다.

동국대가 불교계의 갈등으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을 우리는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딛고 다시 일어설 땅 또한 불교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종단 집행부와 동국대 재단의 화답이 필요하다.

이상근
본교 대학평의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 봉은사 땅 매각과 해화관(당시 공무원교육원) 건물 매입을 둘러싼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재단·대학·동창회 연석회의(1974. 3)

2007 전국 대학평가 어떻게 봐야 하나

외형평가 한계 … 재정·연구분야 혁신 절실

하위권 지표 특별관리 필요, 10월 중 대응책 발표 예정

중앙일보가 실시한 2007 전국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2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것으로 신징아 사건으로 어수선한 학내상황에서 발표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중앙일보의 평가는 몇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소규모 대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재정만 투입되면 교육여건이나 지표개선이 뚜렷이 이루어진다. 반면 규모가 큰 종합대학들의 경우 수백억의 재정으로도 지표개선 효과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 공과대 중심의 이공계 학교, 혹은 외국어 특성화 대학 등이 유리한 지표상 특징이 있다. 우리학교와 같이 인문학 중심의 전통을 가진 학교의 경우 유리한 지표가 거의 없는 점이 늘 취약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기사를 보아주길 바란다. 그동안 학교는 대학평가자료의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칭 학생과 졸업 동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더 이상 학교의 현실을 가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아래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 올해 평가자료를 세부항목과 평가치 모두를 공개하기로 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시켜나갈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고쳐나갈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이번 자료공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수와 직원, 동문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 힘을 합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지속적인 하락이 예고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수십년 전의 졸업생을 평가하는 상장업체 임원수나 최근 졸업생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등은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취업률(56위)로 저조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대응방안

이번 평가에서는 모두 11개의 지표가 개선됐고, 14개의 지표가 하락했으며 2개의 지표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와 비교해 순위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다.

38개 모든 지표를 단기에 향상시킬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 예산의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집행을 통해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현재 각 지표별로 지표 관리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관련 부서별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2008년 평가에 대비해 11위에서 20위에 있는 지표들 중 전략지표를 선정하여 2008년 평가에서 지표별 TOP 10에 들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50위 밖의 지표들 중 특별관리지표를 선정하여 지표별 문제점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점진적 향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학교와 같은 대형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재정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여러 지표들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교수연구와 같이 대학의 인적 구성원의 노력과 협조 없이는 지표향상이 불가능한 영역도 있다.

현재 우리대학이 놓인 상황은 과거의 역사적 후광을 배경으로 노력하는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뒤쳐진 재단의 지원,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성과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

상위권 대학들은 끊임없는 재정확보와 연구분위기 쇄신을 위한 가혹한 책으로 학교를 혁신하고 있다. 우리 역시 내부 결속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에 좀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방 중 혁
경영평가팀 외부평가 담당 팀원

외형위주 평가 특성화 반영못해

올해로 14번째인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대학간 경쟁과 수험생들의 대학선택의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량지표 위주로 대학의 외형 측정에 집중되어 각 대학의 특성화 차별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또, 본교와 분교 통합평가에 따른 문제점, 대학의 규모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른 소규모 대학, 이공계열 대학의 유리함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대학평가는 지표수가 지난해 52개에서 38개로 축소됐다. 또 가장치도 500집에서 400집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개선도 부문과 중복성 지표를 폐지하고 대학의 국제화를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주요지표의 경우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진흥재단 등의 주요 자료와 해당 대학의 자료, 그리고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졸업생 평판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교육여건 40위 1단계 하락

이번 평가결과 우리대학은 전국 122개 4년제 대학(국공립 24개, 사립 98개) 중 종합순위 28위를 기록했다.

평가결과를 부문별로 보면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은 올해 40위로 지난해 39위에서 한 계단 떨어진 평가를 받았다.

지표 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기숙사 수

용물이나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률의 경우 높은 개선도를 보였지만 아직도 저조한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당 장학금 규모(7위)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14위) 등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교육비 환원률(78위), 세입금 중 납입금 비율(83위)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학교재정이 등록금으로 유지하되, 교육여건 개선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교육여건은 아직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등록금 의존률이 높아 재단의 기여도를 높이고 외부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화 45위 10단계 하락

2006년부터 평가한 국제화 부문은 45위(2006년 35위)로 평가됐다. 이 부문의 경우 외국인 교수비율, 외국인 학생비율 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비율(62위),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57위)로 해외대학생들에 대한 학교 홍보와 전략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부문은 이번 대학평가의 주요 이슈로서 가치치 비중이 증대되었고, 최근 많은 대학들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부문이다.

앞으로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되며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다.

교수연구 33위 2단계 상승

교수 연구부문은 33위(2006년 35위)로 나타났다. 이 부문은 최근 점진적 순위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대학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교수의 연구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서 주로 국내의 저명 논문수, 피 인용수 등을 평가한다.

계열평균 외부 지원 연구비,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기술이전료 수입 지표의 순위가 상승했고 과학기술 교수당 국내논문 게재수 및 SCI 게재수, 인문 사회체육 교수당 SSCI, A&H 게재수 등의 지표가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지표상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문, 학생들의 사회 평판도와 비추어 볼때 교수들의 연구지표는 아직도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카이스트나 서울대 등 다른 상위권 대학이 엄격한 잣대로 교수 업적 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는데 반해 우리 대학의 경우 교수 성과평가제도가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평판도 18위로 가장 좋은 평가

평판도 및 사회 진출도 부문은 작년에 비해 1단계 떨어진 18위를 차지했으나 평가부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판은 사실상의 현재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졸업생에 대한 평판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교육여건이나 교수 연구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2007 대학평가 동국대 순위

교육여건 및 재정	국제화	교수연구	평판 / 사회 진출도
40위	45위	33위	18위
전체 순위 28위			

교육여건 및 재정

지 표	2006년	순위증감	2007년
교수당 학생수	46위	△ 6	40위
교수확보율	-	-	42위
학생당 장학금 규모	41위	△ 34	7위
등록금대비 장학금 환원률	56위	▼ 37	93위
기숙사 수용률	78위	△ 19	59위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	15위	△ 1	14위
현장실습 참여 학생비율	25위	▼ 43	68위
학생당 교육비	52위	△ 9	43위
교육비 환원률	79위	△ 1	79위
세입금 중 납입금 비율	89위	△ 6	83위
학생 충원률	35위	▼ 11	46위
중도포기율	41위	△ 2	43위

최우선과제는 재정확충

교육여건 개선위해 기부금·전입금 확보 뒤따라야

교육여건 및 재정분야는 지난해 39위에서 한 계단 내려앉은 40위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부분이 비슷한 순위를 보였다. 이는 교육여건이 대학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학교의 재정은 단기간에 변화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병원 등 교육 외의 목적사업에 지출이 늘어나면서 학교재정이 압력을 받았다. 추후 교육 외의 목적사업에 쓰였던 비용들이 학교에 재투자 되면 점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수당학생수 및 교원확보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2005년에 비해 2006년은 교수당학생수와 교원확보율이 각각 61위, 68위에서 46위, 42위 여러 단계로 떨어졌다. 우리학교가 구조개혁 선도대학 등 국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동참해 학생정원을 줄이고 교원확보율을 높여나간 것이 주요했다.

외부장학금에 힘입어 학생당 장학금 규모는 41위에서 7위로 급상승했다. 학생 1인당 받는 장학금은 지난해 평균 40만 9천원에서 올해 147만 9천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학과 선배나 동문들이 내는 기부금도 대부분 장학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부각되는 항목이다.

기숙사 수용률은 59위에 그쳤다. 낮아지고 있는 기숙사 건립을 서둘러 완공하면 상당한 순위상승이 기대된다.

‘학생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률’, ‘세입 중 납입금 비율’ 순위는 각각 9단계, 1단계, 6단계씩 올랐다. 하지만 교육비 환원률과 세입 중 납입금 비율은 여전히 78위와 83위로 처져있다. 우리학교는 학교 운영에 쓰이는 전체 예산중에서 등록금

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기부금과 재단전입금이 확보돼야 할 뿐만 아니라 재단의 재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충원률과 중도 포기율 순위는 각각 46위, 39위이다. 이 두 지표는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학교는 현재 CS경영으로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CS 경영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여건 및 재정분야의 지표들은 재단의 전입금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종단은 불교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종단의 학교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재정 중 등록금 의존비율이 79.7%에 이른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재단이사회의 13명중 9명이나 종단이 파견한 이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단 측 이사의 재정기여도는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기여는 하지 않으면서 이사 수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종단이 학교 교육재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동문 등에게 이사수를 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의 재정이 나아질수록 장학금의 규모는 커지고 학생에게 투자되는 교육비 또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만족도 상승효과를 내는 구조가 마련된다. 이는 교육여건 및 재정분야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표상승을 꾀하게 된다. 따라서 시급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재정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위빠사나의 이론과 실습』 참여 안내

위빠사나는 부처님께서 스스로 발견하여 깨달음을 얻은 수행방법이며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수행방법입니다. 현재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남방 불교권에서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불교의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위빠사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거나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선입관을 갖지 않고 주의깊게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위빠사나는 그대로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깊은 집중뿐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합니다. 잘못된 견해가 없어지면 집착과 갈애가 생겨나지 않게 되어 모든 종류의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됩니다.

1. 기 간 : 2007.10.16(화) ~ 18(목) 3회 / 오후 6시 ~ 8시(2시간)
2. 장 소 : 정각원 법당
3. 법 사 : 행운 도정 스님
4. 대 상 : 교직원 및 학생, 일반인 누구나
5. 과 정 : 이론과 수행을 병행하여 진행
6. 참여방법 : 별도의 참가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참가 희망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 요망
(문의처 : 정각원 사무실 2260-3016 ~ 7)

정기법회

정각원에서는 2007년 10월 정기법회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가. 일 시 : 불기 2551(2007)년 10월 23일(화) 오후 4시
나. 장 소 : 정각원 법당
다. 대 상 : 교·직원, 학생, 일반인
라. 초빙강사 : 장사익(국악인)
마. 법 제 : 자연과 인생

정 각 원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11월 원어민특강 프로그램 안내

- 강의기간 : 11월 5일 ~ 11월 30일 / 주 3일 월/수/금 매일 1시간씩 (총 12시간)
- 접수기간 : 9월 17일 ~ 10월 26일
- 접수장소 : 방문접수(해화관 1층 사무실) 또는 이메일 접수
clinic@dongguk.edu
- 문의전화 : 2260-3468, 3470
- 강 의 실 : 추후 공고
- 수 강 료 : 85,000원
- 접수 후 계약이체 (신한은행 140-006-754830 : 예금주 동국대학교)

시간표

시 간	과 목	매 주	월 / 수 / 금
8:00 ~ 9:00	초급 회화 (Aaron)	중급 회화 (Roddy)	Basic Writing (Modesto)
9:00 ~ 10:00	초급회화 (TBA)	중급회화 (TBA)	Debate & Discussion (TBA)
1:00 ~ 2:00	중급 회화 (Lauren)	Interview Skills (Modesto)	
6:00 ~ 7:00	Debate & Discussion (Aaron)	유머와 팝 문화 (Steve Mc.)	예비교원학생반 (Linda)

과목 소개

- 회화 : 수준에 따른 회화 위주 수업
- Debate & Discussion :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 및 토의 위주 수업
- Basic Writing : 문장, 문단 쓰기 연습을 통한 기초 쓰기반
- Interview Skills : 원어민강사 지도를 통한 면접 준비반
- Native 시사토론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토론
- 유머와 팝 문화 : 영화, 비디오 등 미디어를 통한 생활영어 및 문화 이해 수업
- 예비교원학생반 : 영미권 교원학생 지원 대상자 위어진 수업

* Level test 가 필요한 학생은 해화관 1층 English Clinic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 동국 시나리오 공모전

- ◆ **사업목적**
가. 영상문화콘텐츠 중심의 대학(원)교육 활성화
나. 영상문화콘텐츠 창작을 통한 학생들의 동기 부여
다. 학생들의 창작능력 증진
- ◆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가. 신청자격 : 2007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서울캠퍼스) 학부/대학원(석사) 재학생
나. 신청단위 : 개인
- ◆ **신청 및 접수기간**
가. 접 수 : 2007. 11. 26(월) ~ 12.6(목)
나. 심사결과 발표 : 2007. 12. 22(목)
- ◆ **공모부문**
가. 공연예술 부문 : 희곡 / 뮤지컬 대본
나. 영상시나리오 부문 : TV 드라마 / 영화시나리오 / 게임시나리오 / 애니메이션시나리오
- ◆ **제출기준 및 형태**
▶ 장편시나리오 ▶ A4 규격을 중심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
- ◆ **심사항목 및 배점**
▶ 표현력 40% ▶ 창의력 40% ▶ 정서법 20%
- ◆ **수상자 발표** : 2007.12.22(목) (본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 ◆ **시상내용**

수상명	공연예술	영상시나리오	시상내용
1등	1	1	각 200만원
2등	1	1	각 150만원
3등	1	1	각 100만원

*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유의사항

- ▶ 미 발표작으로 관련기관 또는 행사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 ▶ 다수 학생의 참여를 위하여 중복 지원은 불가 함.
- ▶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본 대학원에 귀속됨.
- ▶ 타인저작권 침해 작품, 제작사실이 허위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일삼작품으로 선정된 후 해당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입상을 취소 및 상금을 환수 함.
- ▶ 제출된 서류 및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수상작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함.
-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 및 운반과정에서의 분실 및 파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주최측에서 지지 않음

제출물(신청서 접수 시 제출)

- ▶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 시나리오(장편) 1부
- ◆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처 : 영상미디어학부/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해화관 1층)
나. 연락처 : 02-2260-3762 ~ 4

첨부서식

- ▶ 공모전 참가 신청서(공연예술) 서식 ▶ 공모전 참가 신청서(영상시나리오) 서식

후원 : 송무로영상문화사업단

영 상 대 학 원

오늘의 평가, 재도약을 위한 자기반성의 기회

■ 국제화

지 표	2006년	순위증감	2007년
외국인 교수비율	24위	▼ 17	41위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비율	55위	▼ 7	62위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33위	▼ 24	57위
국내방문 외국인 교학생 비율	35위	▼ 7	42위
영어강좌 비율	16위	▼ 13	29위

108프로젝트, 영어강의 30%로 확대 국제학술교류 활성화 추진 필요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2007대학평가'의 국제화 부분의 순위는 2006학년도 33위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대폭 하락한 44위로 나타났다.

국제화 부문이 작년보다 대학평가에 도입되면서 각 학교가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오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그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부문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진 외국인 교수 비율과 영어강좌 비율은 수치와 순위 모두 하락해 각각 41위, 29위를 나타냈다.

외국인 교수의 채용은 실력 있는 외국인 교수는 평가지표 상승 뿐 아니라 학교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지표로 더욱 실질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교수 스카웃 서둘러야

학교측은 영어강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108 프로젝트'에서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8.2%의 영어강좌 비율을 2011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올해 신입교원부터 영어강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영어강의 이수기준을 졸업요건으로 추가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입학생부터 해당 대학(학과)은 영어진행강의 6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광고홍보학과는 전공교육과정 영어강의 포함 1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도 앞으로 기대되는 항목이다.

해외파견 교환 학생 비율은 0.37%로 57위로 나타나 지난해 보다 24단계 하락했다.

외국대학과의 교류활성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 4월 국제화추진단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또 오영교 총장이 직접 지난 달

유럽대학을 순방하며 학술 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오는 23일부터는 중국·인도의 대학들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외홍보 다각화 해야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과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이 각각 62위, 42위로 해외에서 우리학교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불교권 국가에서의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학술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와 교환학생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4개 외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된 홍보 책자를 각 대학 및 어학당에 배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이공계학생이나 IT전공학과와의 학술교류를 강화해 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부서 신설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입학생에 대해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혜택이 없다.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설 구축에도 노력을 함으로써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화 부분의 가중치 점수가 70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대학 평가 전체의 가중치가 500점에서 400점으로 조정되면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서 17.5%로 커져 이 부문에 대한 역량강화가 중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교수연구

지 표	2006년	순위증감	2007년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지원 연구비	26위	△ 18	8위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	16위	▼ 16	32위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국내 논문 게재수	25위	▼ 3	28위
과학기술 교수당 국내논문 게재수	48위	▼ 12	60위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SSCI, A&H 게재수	31위	▼ 17	48위
과학기술 교수당 SCI 게재수	46위	▼ 17	63위
최근 5년간 교수당 SCI, SSCI, A&H 피인용수	39위	▼ 1	40위
최근 5년간 SCI, SSCI, A&H 10회이상 인용된 교수당 논문수	44위	-	44위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	51위	△ 14	37위
기술이전료 수입	59위	△ 11	48위

교수 당 논문수 1년에 한편 미만 교수연구평가 강화, 혁신노력 절실

교수연구 부분은 작년과 큰 변화가 없이 낮은 순위에 머물러 교수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교수연구 부분 종합 순위는 2006년 35위에 비해 2계단 상승한 33위로 나타났다. 부분 지표는 3개 지표 상승, 6개 지표 하락으로 전반적인 지표의 순위가 하락했지만 종합적 교수연구부분은 현상을 유지했다. 2003년 41위, 2004년 48위, 2005년 46위 등의 평가지표는 평균·사회 진출도 및 종합 순위와 비교해 보면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세한 순위를 살펴보면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지원 연구비 8위, 계열 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는 32위로 무난한 수준이었다. 외부지원 연구비는 지난해 26위에서 8위로 상승했는데 이는 특성화 사업, R&D 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의 규모가 큰 국고지원 사업이 진행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국내 논문 게재 수는 0.7편으로 28위, SSCI, A&H 게재 수는 0.02편으로 48위이다. 이러한 수치조차도 매년 떨어지거나 현상 유지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

해외논문 발표 턱없이 부족

우리학교는 인문사회 계열의 학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년에 교수 일인당 논문 개수가 한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학교와 유사하게 인문사회 계열에 강점을 가진 성균관대, 고려대 등의 논문 게재 건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오랜 기간 쌓여온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과 전통은 우리학교의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을 발판삼아 발전하기 위한 연구가 너무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학기술 교수당 국내 논문, SCI 논문 게재수는 더욱 낮다. 국내 논문 게재수는 0.67편에서 0.61편으로 줄어 48위에서

60위로 하락 했으며 SCI 논문 게재수 또한 0.43편에서 0.34편으로 떨어져 6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은 51위에서 37위로, 기술 이전료 수입 부분은 0원에서 2300만원으로 48위로 올라 과학기술분야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학교의 최근 5년간 교수당 SCI, SSCI, A&H 피인용수는 0.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권의 대학들이 우리학교보다 적게는 세배 많게는 스무 배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초라한 성적표이다. 이와 같은 교수연구 부분의 순위는 우리학교의 연구부진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이 고군분투해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 자신이 공부한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수의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엄격한 성과평가제 필요

서남포 카이스트 총장은 "연구 성과가 부족한 사람을 안고 갈 수 없다"며 테뉴어(정년보장)제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구 분위기 쇄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연구논문 심사요건과 교수업적 평가를 강화해 교수사회를 개혁해야만 대학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 학교도 학문에 대한 연구의 기반이 탄탄한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강의 평가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교수사회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물론 공정하고 엄격한 지표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를 받아들여 학교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교수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 평판 및 사회진출도

지 표	2006년	순위증감	2007년	
취업률	62위	△6	56위	
사시, 행시, 외시 합격자 수	19위	△2	17위	
공인회계사, 변리사 합격자 수	20위	△6	14위	
가레스/코스닥 상장업체 임원 수	11위	▲	12위	
졸업생 채용에 원하는 대학	-	인성 / 품성	15위	
졸업생 직무능력(영어 포함)	19위	직무수행능력	19위	
졸업생 리더십과 조직 응화력	18위 / 14위	리더십	18위 / 조직 응화력	14위
졸업생 자기개발 능력	21위	적극성	17위	
진학을 추천하고 싶은 대학	21위	창의성	18위	
기부금을 내고 싶은 대학	24위	국제경쟁력	20위	
발전 가능성이 큰 대학	30위	발전가능성	21위	

전통과 역사의 후광효과 다른 평가분야 부진 만회

평판 및 사회 진출도 부문은 지난해 17위에서 한 계단 떨어진 18위로 나타났다. 종합순위 28위, 교육여건·재정 부문 40위, 교수연구 부문 33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다. 이는 교육여건과 학교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출신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도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부문에 비해 평판 및 사회 진출도 부문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이유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 등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저력의 결과라는 평이다. 또 선배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학생들의 노력이 모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판 및 사회 진출도 부문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시, 행시, 외시, 기술고시 합격자 수 17위(2006년 19위),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자 수 14위(2006년 20위), 가레스·코스닥 상장업체 임원 수 12위(2006년 11위), 졸업생 직무수행능력 23위, 졸업생 리더십과 조직응화력은 20위로 나타났다.

상장업체 임원 수 12위

가레스·코스닥 상장업체 임원 수 항목은 12위로 현재 기업에 근무하는 임원의 나이를 따져보아 20~30년 전 졸업생들의 사회적 성취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를 통해 과거 우리학교의 명성과 평판도를 짐작 해 볼 수 있다. 올해 평가된 평판도 각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20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의 인사담당자와 일반계 고교 교장 또는 교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졸업생 직무수행능력, 졸업생 리더십과 조직응화력 등의 항목은 5~10년 전 졸업생들의 평판도와 성취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평판과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와 현재 종합순위 28위를 비교해 볼 때 우리학교의 명성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평판 및 사회 진출도도 교육여건과 재정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순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교 발전가능성 25위, 학교 기부선호도 23위, 진학추천대학이 21위에 그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외부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정제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즉, 정제되고 노쇠한 학교의 이미지가 굳어지기 전에 발전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의 탈바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률 제고 노력 뒤따라야

한편, 취업률 부문은 작년과 비교해 6계단 상승한 56위지만 평판 및 사회 진출도 전체 순위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낮은 수치다. 전체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률 부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은 현재 사회 평판도와 예비 동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문을 강화할 수 있다. 앞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4학년에 집중된 프로그램을 저학년의 경력개발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지원센터(센터장=손재영) 변민우 과장은 "지금보다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려면 인력확충이 절실하다. 내년에는 취업박람회를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확대시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앙일보 평가결과를 볼 때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학생들의 노력 여부가 아닌 교육여건 개선, 재정부족, 교수연구부진이다. 학생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정제된 학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하는 교수, 재단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dongguk.edu

발전기금 060-700-0119

100만원을 잡으세요!

기회는 당신의 것!

제45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제22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 상 :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 각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 출 : 10월 22일(월)~11월 9일(금)까지
 직접·우편 접수(전자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입상발표 : 2007년 11월 26일자 동대신문(예정)
 ☎ 문 의 : 02)2260-3491~2

동대신문사

2008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2. 모집인원 :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간명.
3. 지원자격
 - *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 학과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2007. 10. 15(월) ~ 10. 24(수)
전형일	2007. 11. 3(토) 10:00
합격자발표	2007. 11. 14(수)
6. 장학혜택 :
 - 가. 이공계 대학원 석사/박사 신입생 전원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 단, 교육·연구·실험실습 등의 사무보조 희망자에 한함
 - 나. 본교 출신 학사 또는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자 입학금 전액 장학금 지급
 - 3년 이내 진학자
 - 다. 외국인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 라. 각종 교외장학 및 조교장학, 총장장학, 명진장학, 동국가족장학 등 다수의 장학금 지급
 - 마. (BK21) 세계화 시대 불교화 교육연구단, (BK21) 차세대 나노반도체 원천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팀 선정 및 기타 국가지원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장학 및 연구비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모집요강 참조

입 학 처

서울캠퍼스 입학처 입학관리팀 T. (02)260-8861~4
 경주캠퍼스 입학처 입학관리팀 T. (054)770-2031~4

CISSP 자격시험 준비 특별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19일까지 선착순 마감
- 교육일정 (주말반)

과 정 명	교 육 기 간	교 육 시 간	비 고
제2기 CISSP 특별과정	2007. 10. 20(토) ~ 11. 11(일) (토·일요일 / 8일간)	09:30부터 (1일 4~6시간)	세부사항은 문의바람
- 수강료

수 강 료	대 상	비 고
650,000원	CISSP 자격시험 준비생 직장인, 대학(원)생 등	· 한국 CISSP협회 회원 5만원 할인 · 회원가입 무료(http://www.cisspkorea.or.kr) · 본교 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10만원 할인
-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수강신청
인터넷 접수 :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ai.dongguk.edu>)에서 신청
방문 및 FAX 접수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Tel : 02-2260-3733, FAX : 02-2260-3736)
 - 수강료 납부
무통장 납부 : 신한은행 140-007-734590, 예금주 : 국제정보대학원
현금 및 카드 납부 : 직접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방문 납부

국 제 정 보 대 학 원

달하나 천강에

이름 값 못하는 레포트



김승호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독서와 글쓰기가 그야말로 화두가 된 세상이다.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목록으로 나와 있으며 입시, 입사시험에서도 글쓰기를 부과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삼국시대 조조의 아들 조식이 '문장은 경국의 대업이요, 불후의 성사'라 외친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 글쓰기가 한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말에는 과장이 없지 않더라도 글쓰기가 개인의 앞날을 좌우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글쓰기에 대한 강조는 한낱 구호일 뿐 대학생들의 작문태도에서 진정성을 찾기는 편이나 힘들다. 대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쓰는 레포트를 예로 들어보자. 과제물을 받아 읽을 때마다 필자는 '그 밥

에 그 나물'이라는 생각부터 앞선다. 동일한 과제를 부과했으니 내용이 엇비슷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나 근본적인 이유는 주어진 과제에 별 공력을 들이지 않은데 있다.

참고서 몇 권을 정한 뒤 이곳저곳에서 단락을 끌어다 적당히 구색 맞춰 나열한 것들이 태반이다. 책을 참조하는 것은 그나마 성의가 있는 편이다. 인터넷 검색의 귀재들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모든 것을 컴퓨터 앞에서 해결하며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분량의 레포트를 만들어내는데 남다른 특기를 발휘한다.

하지만 인용처를 빠짐없이 적기하는 일은 드물고 위아래 단락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용어도 동일이 되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료를 꼼꼼히 읽지 않은 채 분량 채우는 데만 열중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품 대신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학생은 없을까. 이런 푸념은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학부생들이므로 제 삼자의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 것으로 족해야 한다고 보는데도 있으나 레포트일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비판을 포함하는 글이 되어야 한다. 인

용위주의 글쓰기에 익숙해버리면 스스로의 판단이나 생각을 드러내기가 점점 두려워진다. 레포트에서 학위논문처럼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참신한 내용까지 두루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해도 최소한의 규범은 지킬 필요가 있다. 출처 모를 곳에서 잘려온 유령의 글로 가득 채워지고 정작 본인의 말은 전혀 찾을 수 없다면 제출자는 표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나 발상, 비판을 글에 담기 위해서는 기존 성과,이론을 맹목적으로 뒤쫓는 습성부터 버려야 한다. 사소한 것까지 의문을 품고 논리적으로 판지검기에 익숙한 사람으로 변해가자. 그럴 때 비판적 시각이 썩을 수 있고 나름의 대안이 가능해진다. 주변의 냉소와 비판 때문에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 글은 주제적 인간으로 나를 확인시키는 기표의 덩어리라는 자부심을 되뇌어보자. 기성의 사고와 주장에 의문을 품고 뒤집어 보고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려 인간됨을 다하는 그런 글이 보고 싶다.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동대신문, 학생들의 '소통의 장' 되길

이웃의 무관심 속에 어느 할머니의 시신이 한 달이 넘게 방치되었다가 발견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웃과의 왕래도 줄어들고, 특정한 동기에 따라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면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어 버렸다.

1면에 다루었던 과학관 실험실의 화재사건을 처음 접하면서 위에서 언급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피해의 규모와 인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사고라는 점을 보아도 이번 사고는 학

내에서 학우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주변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점차 줄어들어 사회 분위기가 타인지, 경영대 소속인 나에게까지는 '이과대의 화재 사고' 등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아무리 같은 울타리 내에서 생활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다르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게 현실이다. 서로 접하기 힘든 학내의 소식들을 공유하고, 학교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학교신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학내에 잘 알려지지 않는 소식들을 전달하는 것이 학교신문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신장아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곤 했다.

아마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번호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신장아 사건관련 기사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대변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발표수업' 관련 기사나 '여성전문 콜택시' 관련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다. 동대신문이 앞으로도 학교 내외의 유익한 소식들을 전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윤경탁(경영대 경영정보2)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입시 논술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입학처와 공동으로 논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논술 준비 연중기획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번 2학기에는 논술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서 ●토론 ●NIE ●연습 ●평가 ●나만의 생각 ●유의 사항

편집자

4. 논술 준비 이렇게 한다 - 연습

이제는, '쓰기' 다

- 글 쓰는 순서
1. 독서
 2. 토론
 3. NIE
 4. 연습
 5. 평가
 6. 나만의 생각
 7. 유의사항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또 아무리 토론을 잘한다고 해도, 실제로 써보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다. 논술 준비에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논술이란 결국 '글쓰기'라는 점이다. '논술 십계명'이나 '논술지침 20선' 등 논술을 위한 날렵한 해법들이 학원이나 서점가에서 유혹의 손길을 뻗는다 해도 '써 보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논술의 첫인상, 서론은 매력적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의 기본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이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서론과 결론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한다. 서론의 중요성은 모든 글쓰기에서 강조된다.

필자의 참신한 생각이 본론에 담겨 있더라도 서론에서 매력적인 인상을 주지 못하면 그런 글은 끝까지 읽히지 않는다. 논술답안을 평가자가 끝까지 읽게 하는 힘, 그것은 서론에 달려 있다.

서론은 글 전체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평가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문제나 쟁점을 제시해야 하고 문제에 대한 필자의 답이나 쟁점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제나 쟁점을 제시할 때는 그 문제나 쟁점이 왜 중요한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이유나 배경에 관한

소개 없으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문제에 대한 답이나 쟁점에 대한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소개해야 한다. 이 때 필자 자신의 입증 방식이 기존의 다른 방식과 비교해서 더 돋보인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론을 작성할 때는 글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다면 문제의 중요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후에 전개될 내용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할 뿐이다.

논술의 힘, 본론은 탄탄하게

본론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결론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논거를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본론이 풍요로워 보일 수도 있고 빈곤해 보일 수도 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힌 다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본론의 역할이다. 글의 힘은 본론에서 나온다.

본론에서는 한 문단에 한 가지 내용을 배치하면서 각 문단의 연결에 논리적인 비약이 없도록 전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본론은 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제시 등이 다루어지므로 한 편의 글에서 가장 비중이 크며 양도 가장 많다.

그러므로 서론이나 결론이 한 문단으로 처리될 수 있는 데 반해 본론은 문단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한 문단 안에서의 체계적인 구성 그리고 문단 사이의 논리적이야 한다. 중요한 이유나 배경에 관한

하는 관건이 된다.

논술의 마무리, 결론은 깔끔하게

서론과 본론을 작성하면 결론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글에서 결론이 필요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결론의 내용이 본론을 단순히 요약하는 정도면 결론은 없어도 된다. 제한된 분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약은 불필요할 경우가 많다. 또한 결론에서 전망을 제시하는 것도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단순 요약하는 내용으로 결론 단락을 메운 다음, '~하는 것이 인류공영을 위한 길이다'라는 식의 거창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사족 같은 결론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형식의 글이면 결론은 글을 더 돋보이게 한다. 그럴 경우 결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 첫째, 본론에서 주장으로부터 증명이 나오는 과정을 독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하고, 그 과정이 정당한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둘째, 주장이나 근거 및 증명이 가진 범위나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 이 때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까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와 같은 상투적인 표현은 물론 '나쁜 점은 피하고 좋은 점은 살리도록 하겠다'와 같은 도덕적인 훈계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인 주장은 진부하고 촌스러울 뿐이다. 세련된 결론은 글 전체를 생동하게 한다.

김혜련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사

한글학교 '하람' 봉사 체험기

토요일은 하람 하는 날

"하람인이 되기 전, J씨에게 토요일은 그저 '무한도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J씨에게 토요일은 '하람 하는 날'입니다. 자기만의 주말을 접어 세상을 펼친 J씨를 두고 괴테는 "주체성을 잃었으나 세계를 발견했다"라며 격려합니다"

지난 한주동안 5기 모집을 위해서 배포했던 전단지 내용 중 일부다. 전단지 지면으로는 미처 다 실지 못했던 J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람을 하기 전, J에게 토요일은 그저 '오후만 있던' 날이었다. 밤새도록 틀어둔 라디오에서 '윤종신의 두시의 데이트'가 흘러나를 무렵에야 비로소 J는 잠에서 깬다,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부모님의 잔소리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J는 게시판에서 하람 모집 공고를 보게 된다. "동국대학교 한글학교 하람은 토요일 오전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이와 더불어 두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토요일을 '이벤트 데이'로 정해서 외국인들과 함께 문화체험을 하며, 그 밖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5: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들어

온 J는 4:1의 경쟁률 속에서 하람인이 된다. 첫 수업날 J의 휴대전화는 약속 시간인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각을 면했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강의실로 들어간 J, 사람들 눈초리가 어쩔지 부담스럽다. 그날 J는 휴대전화 액정에 시간이 10시 30분으로 찍혀 있어도 하람에서는 지각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았다. 10시 30분으로 숫자가 바뀌는 순간 정시(定時)로부터 몇 초가 흘렀다는 게 이유였다.

기획국, 관리국, 교육국 중 교육국에 속한 J는 수분별로 기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반이 나뉘는 가운데 초급반으로 배치되었다.

담임교사가 앞에 나와 수업을 하는 동안에 외국인 옆에 앉아 틈틈이 외국인을 도와주던 보조교사 J는 한국어로 묻고 영어로 답해도 서로간의 뜻이 통하는 색다른 경험을 한다.

매주 토요일을 '하람하는 날'로 생각하기를 일 년째, J는 모의강의를 거쳐 이번 주 토요일 담임교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집중해 주세요" 입을 댄 순간, 학생들이 질문을 던진다. "집중이 뭐예요,

선생님?" 이마엔 땀이 흘러내리고 부들거리는 다리는 통 멈출 줄을 모른다. 숨 고르기를 하는 와중에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들과 함께 송편을 빚었던, 작년 성탄절에 강화도 한우리 장애인 마을에서 '물레 산타'를 했던 날들을 되짚어본다. 그리고 올 겨울에 있을 국제워크캠프(IWO)와의 제휴 아래 인도네시아로 떠날 봉사여행을 떠올린다. 교탁 위에는 J를 비롯한 하람인들이 직접 만든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고, 그것을 펼치자 J의 마음이 진정된다.

양드레 지드그 그랬다지. '그대를 닮은 것 옆에 머물지 마라. 결코 머물지 마라.....'. '너의' 집안, '너의' 방, '너의' 과거보다 더 너에게 위협한 것은 없다' 양드레 지드는 반만 맞았다. 국적이, 피부색이, 언어가 달라서 재밌는 하람 교실이지만, 'ㄹ'을 골잘 흘려 쓰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은 딱 닮았다. 그런 우리에게 무서울 것은 없다고 J는 생각한다. "집중이 뭐냐면요....." 한층 밝아진 J의 목소리가 만해관 강의실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구성민(문과대 국문4)



독자 사진첩

가을의 떨림소리 ...

'땃'과 '열정'을 이는 사람들이 모인 현여울...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클래식 기타의 부드러운 선율...
그리고 현여울의 아름다운 열정

동아리 '현여울'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원 향
월 (10/15)	떡만두국백반 (2000) 제육김치덮밥 (2000) 치즈돈가스 (2500)	햄구이 (1800) 참치전골 (2500) 불고기소스볶음밥 (2000)	철판비이킴치볶음밥 (2900) 닭곰탕 (2500) 영양고구마밥 (2500)
화 (10/16)	섭산적구이&어묵찌개 (2000) 치즈볶음밥 (2000) 치킨가스 (2500)	공치양념구이 (2000) 설렁탕 (2500) 후라이드치킨카레라이스 (2000)	돌솥비빔밥 (2900) 마피두부 (2500) 버섯잡채밥 (2500)
수 (10/17)	꼬치어묵우동 (2000) 오삼불고기 (2000) 수제돈가스 (3000)	돈육매추리알조림 (1800) 부대찌개 (2500) 해물볶음밥&자장소스 (2000)	새우가스정식 (2900) 칸참치비빔밥 (2500) 김치찌개 (2500)
목 (10/18)	버섯육개장 (2000) 닭도리탕 (2000) 새우가스 (2500)	주꾸미이채볶음 (2000) 손만두국 (2500) 제육비빔밥 (2200)	낙지비빔밥 (2900) 양지떡국 (2500) 비빔돈카레라이스 (2500)
금 (10/19)	북어해장국 (2000) 쇠고기당면덮밥 (2000) 수제돈가스 (3000)	순살닭조림 (1800) 갈비탕 (2500) 산채비빔밥 (2000)	수제돈가스 (2900) 순두부찌개 (2500) 뼈해장국 (2500)

대학평준화로 학벌사회 타파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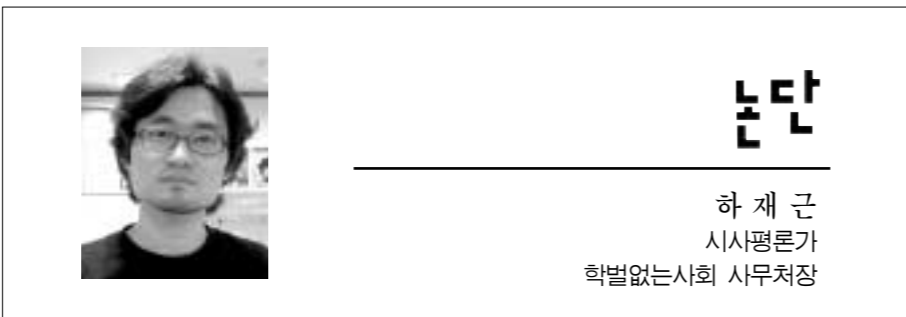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족보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노비와 평민들이 양반 족보를 거짓말로 가지게 된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이다.

지금 역사를 쓰면서 그 노비와 평민들의 윤리성을 문제 삼는 역사가 있을까? 조선 후기의 문제점으로 족보 검증시스템 미비를 꼽는 역사가를 본 적이 있는가? 또, 장영실 등의 사례를 들면서 조선시대가 사실은 신분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역사가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식의 관점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학벌사회, 신분제사회

그런데 바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 전에 한국사회에서 벌어졌다. 유사신분제인 학벌사회에서 학력위조 사건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개인의 윤리성을 문제 삼고, 언론은 학벌·학력 없이도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느라 열을 올렸다.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 주류의 응답은 검증시스템 강화였다. 이전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아마 우리 후대가 지금의 기록을 읽으며 크게 비웃을 것이다.



논단

하재근
시사평론가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학벌사회가 신분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대·연고대·이대 그룹이 한국사회 상층부 거의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자리는 여타의 서울지역 명문대 출신들이 나눠 먹는다.

그 밖에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자리는 거의 없다. 그러면 명문대 출신들만 지도층이 될 만한 우월한 인종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은 다수의 국민은 지적으로 열등한 인종이어서 평생 명문대 출신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신분제가 아니라면 이게 사실이란 말이 된다. 한국인이 사실은 다수의 열등인종과 소수의 우성인종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냐. 이게 말이 되나?

검증 강화=신분제 강화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분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난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명문대 학벌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사회지도층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하다. 명백한 신분제다. 신분제 구조에서 거짓말 열풍이 부는 건 당연하다. 이것을 막겠다고 검증시스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신분제를 강화하자는 말밖에 안 된다.

학벌의 실체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입시성적이다. 이것은 사회를 지도할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게다가 그 입시성적이란 것은 부모의 재산과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 연동된다. 부모의 재산은 본인의 능력과 더더욱이나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학벌은 무시할 대상이지 검증할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학벌검증보다 위조가 더 윤리적이고 생산적일 수도 있다. 부모 재산과 연동된 입시성적이라는 거짓말을 깨는 것이니까. 또 나중에 위조할 수 있다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가적 해악인 입시공부를 안 해도 되고 사교육비를 안 써도 되니까.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학벌신분제를 아예 철폐하는 것이다.

대학서열 평준화 필요

그것은 학벌을 생산하는 대학서열을 평준화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중등과정 성적으로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제도를 없애고 전면적인 능력경쟁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오직 대중과 학생의 봉기로만 가능한 일대 혁명이다.

사교육비에 투여할 자원을 보유, 중등과정 입시경쟁 체제가 유리한 구체제의 기득권세력은 전심전력으로 역사의 전진을 막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면 저항을 뚫을 수 있다.

11월 24일엔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한국역사상 최초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부터 새 역사를 여는 일에 동참하자.

메아리

역행할 것인가

▲ '중 3평', '90%가 넘는 중학생이 하루 4시간 과외 받아'

이는 70년대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신장 발달 저하 현상이 심해진 것을 빗대는 당시 신문기사 제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1974년 6월 28일 고교 평준화 제도를 발표했다. 그 전에 학교별로 시합을 치러 학생을 뽑는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로 고교입학 시험을 치른 다음 추첨을 통해서 학생들을 해당지역 고등학교에 고르게 배정하는 방법이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9일 공개한 교육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후로는 그 동안 정부가 대입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비판하며 대입 자율화, 300여개의 특성화 고교 육성, 맞춤형 학교지원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두고 사회 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70년대, 비평준화로 인해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중학생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에 시달렸으며 학부모들은 우수 고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사교육에 열을 올렸다. 이 때문에 과외가 성행했고 중등교육 운영을 입시위주로 몰고 갔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명문 고등학교는 명문대로까지 이어져 '그들만의 리그' 인 학벌사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는 본래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일부 특목고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교로 그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

특목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과 고교를 늘린다 한들 제 기능을 할지 의문이며 자칫 잘못하면 70년대 명문 고등학교의 부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부모님은 사교육비를 더 들이던데 많이 쓰게 되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입시 경쟁에 뛰어들지도 모른다. 또한 학벌주의의 뿌리를 더욱더 튼튼히 해 사회의 양극화를 고착시킬지도 모른다.

이승이 문화부장
thispaper@dongguk.edu

사설

정혜결사의 정신이 그림다

학교가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개인의 가짜학위 문제로 촉발한 신정아 사건은 불교종단 내부의 뿌리 깊은 반목 구조, 청와대와 언론의 적대적 갈등 관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이 서로 상승효과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건의 내적 외적 환경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와중에 종단, 재단이사회, 학교 집행부와 교수회 등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동국가족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교수회는 이사진 전원 및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퇴진 요구를 받은 쪽은 교수회를 비판하고 있으니 불난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형국이다. 지금 우리가 이르고 있을 때인가. 사학 3대 명문 운운하던 대학이 종합순위 28위로 떨어져 있다. 남 탓하기 전에 내 탓 먼저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며, 위기와 한계에 직면해서는 전통과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발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고려시대 지눌스님이 밝힌 정혜결사문의 정신이 새삼 그림다. 이 결사문은 지눌스님이 고려 말기 불교계의 타락상을 바로잡기 위해 제시한 치유책으로서 올바른 선정과 지혜를 닦아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독려하는 글이다. 그 첫 구절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사라'이다. 마음의 본성이 흐려지고 쇠락함에 따라 일어난 일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흐려진 그 마음을 다시 바로 잡음으로써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혜결사문의 현대적 의의는 그것이 꼭 승단 내부의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땅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면 역시 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은 보편적인 이야기 구조이다. 땅은 우리 모두가 밟히고 살아야 하는 근본이자 토대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바로 학교이고 불교이며 우리의 마음이다. 이 셋은 함께 넘어져 있지만 일어나는 것도 함께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다. 힘을 합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학교의 주요 구성원들이 이제 광장으로 나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학교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며, 구성원들은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이운재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1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보리수 자기 자신을 이겨라

승찬 스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 자못 진지하게 해답에 이르는 길을 여쭙었다. 이때 승찬 스님은 그 젊은이에게 누가 지금 자네를 얹어매고 있는나고 되물었다. 해답이란 공공 묵인 것을 풀고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니 그렇게 되물을 법도 하다. 어느 누구도 나를 얹어매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젊은이가 대답하자, 승찬 스님은 젊은이의 무지함을 꾸짖기라도 하듯이 '그렇다면 다시 해탈을 찾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고 타일터 말했다. 승찬 스님의 이 뜻밖의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된 이가 바로 도신(道信)이란 분이였다.

불교에서는 그릇되고 빛나간 생각이 나를 얹어매는 것을 마(魔)라고도 한다. 그러한 마는 우리의 건강한 마음에 많은 해를 입히기 때문에 악마(惡魔)라고 말한다. 싯다르타가 붓다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표현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움츠러드는 부질없는 생각들을 완전히 떨쳐버렸음을 뜻한다.

성열
강남포교원장

제1기 리더십 특강 김희옥 헌법재판관 초청강연

주제: 준비하는 삶과 우리 사회의 흐름 읽기
일시: 2007년 10월 22일(월) 오후 3시~5시
장소: 본관 중앙당
주관: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초콜릿에서 새집중후군까지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화학 이야기 '퀴리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 저자 여인형 교수 강연회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저자의 사실과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 교양역량을 강화하는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책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1. 행사명: 제4회 (저자와의 대화)
2. 일시: 2007. 11. 12(월) 오후2:00-4:00
3. 장소: 중앙도서관 A/V실(2층)
4. 강연자: '퀴리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의 저자 여인형 화학과 교수
5. 내용: 강연
6. 인원: 80명
7. 참가신청: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결원시에는 현장접수 합니다.
8. 주최: 중앙도서관
9. 후원: 도서출판 한승
10. 기타:
* (작자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이 채택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또한 정시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책과 상품권을 나눠 드립니다.
* 이메일 주소는 choiw@dongguk.edu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졸업요건 영어PASS제 모의토익 (11월3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써, 해당 학생들은 대학/학과와 지정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정규시험(TOEIC, TOEFL, TEPS) 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접수: 10. 29 (월) ~ 10. 31(수) 24:00까지 (동국대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2. 입금: 10. 29 (월) ~ 10. 31(수) 24:00까지 (계좌이체)
3. 접수증 출력기간: 11. 2 (금) ~ 11. 3(토)
4. 취소 및 응시료 환불할 수 없습니다.
5. 방법: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6. 시험: 2007. 11. 3(토) 10:00~12:30 혜화관 2층 강의실
7. 대상: 영어PASS제 미취득자 및 일반재학생
8. 응시료: 5,000원
9. 입금마감일: 2007. 10. 31 (수) 24:00까지 (미입금시 접수 취소됨)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7-481766 (예금주: 동국대학교)
10. 주의사항
가. 입금마감일까지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응시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행위 적발시 정계조치 됨.
11.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12. 문의: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혜화관 1층, 2260-3468, 3470)
13. 시험 주의사항:
가. 9시 3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4. 다음 모의토익 시험일정 안내
- 11월 24일(토)
- 12월 22일(토)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독감예방접종 신청 안내

동국대학교+한방병원 의료진의 파견 진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독감예방백신은 그해의 유행 인플루엔자종 해마다 다르게 생산되므로 미리 약을 구입한 후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셔야만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접종장소: 보건소
2. 접종비: 약 12,000원 예상. 접종시에 지불
3. 접종일자: 추후개발공지
4. 신청일시: ~ 10월19일, 오후 5시까지, 학교홈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5. 문의사항: 보건소(본관2층) 전화: 2260-3443
6. 접종기관: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7. 유의사항: 신청자만 접종가능

금연클리닉 2기 모집 "흡연은 당신의 젊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본 보건소는 중구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하여 양 기관 상호협력 하에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선착순40명)
2. 참가신청: 학교보건소(본관2층) 방문취약참여용서기 작성
3. 일시
가. 10월28일(금)부터 6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오후6시 사이, 개인당 상담시간은 10분내외 소요됨)
나. 10월28일 오후 3시 금연강의 필히 참석 (다량관 세미나실)
4. 내용
가. 중구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 파견, 상담
나. 행동요법과 금연보조제 지급
다. 열약사 상담 및 금연상담사가 금연에 대한 조언
라. 6주 과정 성공자에게 6개월 추후 관리
5. 문의처: 보건소 (교내전화:3443)

보건소



힙합 동아리 ▶ AJAX가 랩과 춤으로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동국 FESTIVAL in Aut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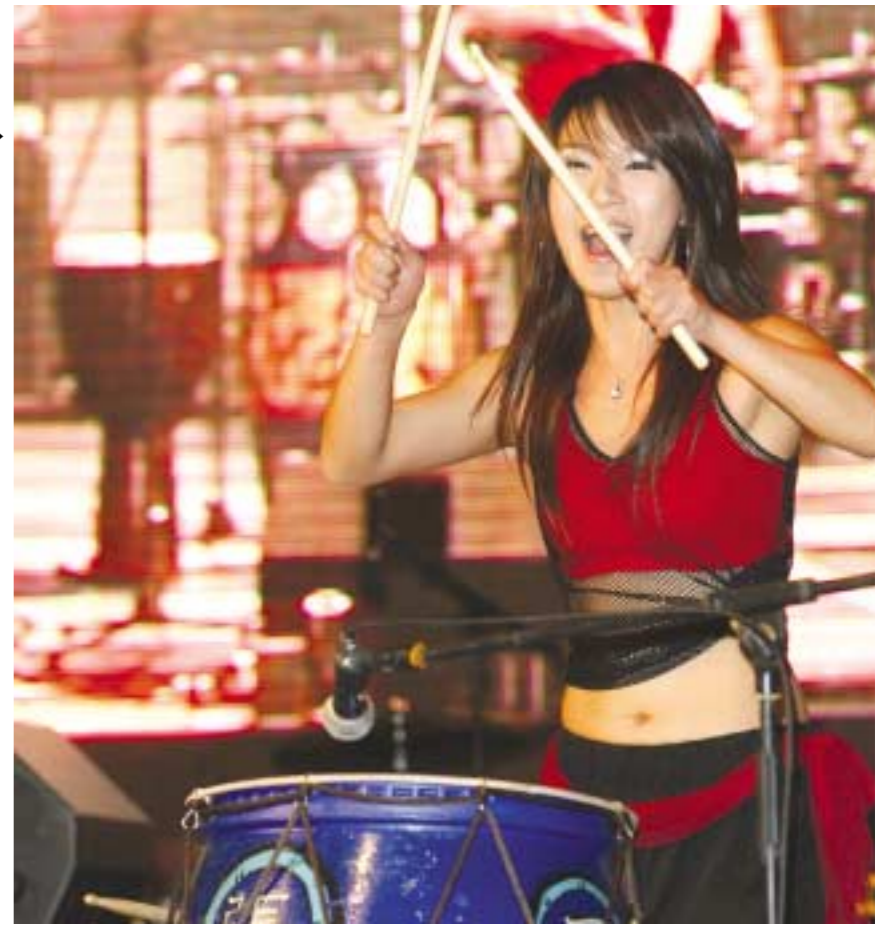
타악 퍼포먼스팀 '비트씨클'의 무대 ▶

▶ 백상응원 페스티벌에서 관객과 백상응원단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재학생 가수 이승기 등장에 열광하는 관객들



▲ 핑크색 의상을 입고 핑크팬더 노래에 맞춰 귀엽게 춤을 추는 리턴댄스 동아리 씨드



'목격가요제' 대상수상자를 만나다

7전 8기 노력이 이뤄낸 환상의 하모니



▲ 김기범(신방 2), 김성진(전기공 2)

오래간만에 만해광장에 학생들이 가득하고 뜨거운 열기가 흘러넘쳤다. 동국인의 기를 가감 없이 모두 보여준 목격 가요제, 그 서늘한 가을밤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인 대상 수상자 김기범(신방2), 김성진(전기공2)군을 만났다.

- 수상소감은. = 일 년을 버리고 별렀던 일이라 더욱 기쁘다. 기쁘다는 말 이외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위에 동기들도 멋있었다고 칭찬도 해주고 동아리 선배들 모두 자기 일처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 'I Promise you'를 선택한 이유는. = 곡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관객의 시선을 한 번에 집중시킬 수 있게 '딱 찌는' 노래를 고르는 것이었다. 게다가 예선에서 1절만 부르기도 1절 안에 확실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선정해야 했다. 두 명이 노래를 불러야 하기에 노래가 몇 곡으로 한정되고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I Promise you'가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부르기도 좋아서 선택하게 됐다.
- 연습을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 우리가 부른 노래가 원래 이정과 원티드, 합해서 네 명이 부른 노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공연 중에 그 화음을 만들 수 없어 녹음을 따로 해야 했다. 마음 같아서는 시설 좋은 녹음실에서 하고 싶었지만 녹음 장비도 없고 재정도 열악해 집에서 마이크를 놓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녹음을 해 놓고 나서도 화음이 노래와 딱 맞지 않아 여러 차례 수정을 해야 했다. 연습을 하면서 중들이 없었기 때문인지 녹음 때문에 고생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작년 목격 가요제와 올해 대학가요제에서 고백을 하셨는데. = 작년에는 목격 가요제에 따로 나갔었는데 모두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둘 다 '동계구름'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동아리는 매년 2학기에 창작곡 공연을 한다. 작년에 그 공연을 위해서 'miss you'라는 노래로 대학 가요제에 참가했다. 그런데 2차 예선에서 탈락했다. 작년 공연에서 반응이 좋았고 덕성여대, 상명여대 가요제에 참가해 상을 받았던 노래이기도 해서 기대했었는데 결승에 오르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
-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 생각했던 참가자는. = 금상을 받은 이종훈(경영2) 학생의 무대를 보며 가장 걱정했다. 고음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관객들의 호응이 정말 좋아서 그분이 대상을 받을 줄 알았다.
- 또, CB MASS의 노래를 부른 이상혁(국제통상3), 여기용(신방3) 학생도 경계 대상이었다. 리허설 할 때 보니 정말 잘하고 관객들의 호응을 잘 이끌어 내는 모습이 대단했다.
- 대상 상금이 100만원인데 이를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 아직 상금을 받지 못해서 뒷풀이 한 술값을 외상으로 달아놓고 있다.(웃음) 상금을 받으면 일단 외상값을 치르고 동아리에 수리해야 하는 약기와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나눠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 일단은 둘 다 2학년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한다. 역시 군대 문제가 해결 돼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대학가요제에 참가해 볼 생각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저음을 뽐내다 랩으로 뽐내다

학생참여는 증가 ... 일회성 행사에 그친것은 아쉬워

가을 바람과 함께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9일부터 동악은 학교 곳곳에 축제의 꽃을 피웠다.

다양한 색깔의 응원전 · 동연제

지난 9일, 백상응원 FESTIVAL을 시작으로 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백상응원단의 파워풀한 무대와 함께 이화여대, 인하대 등 다른 학교의 찬조 공연으로 무대의 열기를 더했다.

들깨날 제 23회 동연제 '심심타파'에서는 손짓사랑회, 통계구름 등 9개의 동아리의 공연으로 무대를 꾸몄다. 클래식 공연에서부터 격렬한 꺾임과 강한 비트의 힙합 무대까지 가지각색의 공연이 어울려졌다.

권혁준(국제통상 2) AJAX 회장은 "특별한 메시지를 담기 보다는 가벼운 하우스 음악으로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엄태성(경영2) 아리랑 회장은 "동연제를 통해 많은 관객과 호흡하며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

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과 무대시설 준비에 비해 홍보기간 및 홍보내용이 부실해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또한 동아리의 특색있는 무대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운 10분 정도의 시간이 짧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두가 하나된 목격가요제

축제 마지막 날 열린 목격가요제에서는 150여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12팀이 무대에서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DUBS 무대 영상과 참가자의 노래가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하는 가요제가 되었다. 특히 네티즌 인기상과 인기상 2관왕을 차지한 동국신기(강송구 · 건축공 2 외 4명)는 노래 외에도 현란한 댄스, 개인기와 감쪽한 소품으로 무대를 꾸며 콘서트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각 참가자들의 응원 열기도 공연 못지않게 뜨거웠는데 관중석에서 벌어진 9팀의 응원경쟁은 또 하나의 재미를 관객들에게 제공했다. 허소정(국제통상3) 총학생회 사

무국장은 "이번 축제에서 학생들의 화합과 참여를 중요시 했다"며 "축제 기획 때부터 참가자 전원에게 직접 현수막을 제작하게 하는 등 응원을 유도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기간 중에는 △신정야 사건 관련한 총장, 이사장, 총학생회장, 교수회장, 직원노조위원장, 총동창회장의 6차 대담 요구 △신정야 사건에 관련된 해당 교직원의 징계 △장학금을 횡령한 조영길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도 학생들에게 받았다. 단순히 즐기는 축제 이외에도 학교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끈 셈이다.

김세진(경영3) 군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축제를 통해 만들어져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상응원 FESTIVAL과 동연제는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 연예인만 보려고 몰

리는 좋지 않은 풍경이 여전히 벌어졌다. 학생들의 참여가 예전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라기보다는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보며 단순히 즐기는 일회성 행사라는 모습을 지울 수 없었다.

축제가 남긴 과제

이번 축제는 기존의 축제에 동국인 남산 걷기 대회와 같이 새로운 기획들이 추가되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 축제였다. 하지만 학과나 동아리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의 모습은 점차 줄어들고 단순히 즐기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앞으로 눈으로 보기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맘껏 뽐낼 수 있는 마당을 축제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글=이승기 기자
사진=이정훈 객원기자, 육성우 객원기자
thispaper@dongguk.edu

